

지역 소식통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고창군, 보험료 80%지원

고창군이 농기계 이동과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한 영농을 위해 2020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농기계 종합보험료(국비 50%, 자담 50%) 중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 일부(3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해 자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콤팩트, 경운기 등 12종을 보유한 농업인이며,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보험 기간은 1년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위험담보 특약 등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높은 자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환경관리원 주간근무로
부안군, 근무환경 개선

부안군은 환경관리원들의 근무환경을 주간근무제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내 생활쓰레기 수거시간이 현재 오전 1시부터 7시까지에서 내달부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변경 운영된다. 이는 환경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조치이다.

그동안 환경관리원들은 어두운 야간과 새벽시간에 근무해야 하는 불편이 컸고 수면부족과 피로 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여 왔다.

군은 이번 주간근무제 시행으로 환경관리원 안전 확보, 적극적인 잔재물 수거, 노동환경 개선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따뜻한 시선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오래된 집 고쳐드려요”

정읍시 '2020 차상위가구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 가구당 500만원 지원

정읍시가 사회적 주거약자인 차상위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차상위가구 집수리사업을 추진한다. '차상위가구 집수리사업'은 차상위



정읍시가 사회적 주거약자인 차상위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차상위가구 집수리사업을 추진한다.

가구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억1천5백만 원을 투입해 가

구당 500만 원을 집수리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 23개 읍면동으로부터 집수리 대상 가구를 접수받아 주택 노후도와 긴급성 여부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가구를 선정했다.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화장실과 보일러, 지붕 수리 등 생활상의 불편 해소와 미관개선을 위한 집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공 후 하자발생이나 지속적인 주거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원 기관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9년에도 지역 내 차상위가구 27가구에 대해 1억4천5백만 원을 지원해 주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특히, 정읍지역 자활기업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집수리사업이 차상위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19' 안전지역 유지 '총력'

마스크 · 손 소독제 등 배부 지역사회 감염 예방 지도 관리

정읍시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마스크(1.180장)와 손 소독제(3.830개), 코로나 예방수칙 안내문(1.600장)을 배부했다.

또 목욕장업과 숙박업 대형음식점 등에 소독제를 배부하고 내부물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시설 종사자들의 위생수칙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화장실 내 공중수건 사용금지, 개인 접시 사용 등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위생용품 지원과 지도 관리를 계기로 영업주와 종사자의 위생 의식 향상은 물론 보다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로 안전한 외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등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농기센터, 봄철 마늘 · 양파 병해충 사전 방제 당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욱)는 마늘 · 양파의 본격적인 생육기를 맞아 웃거름 관리와 병해충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생육 조사 결과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로 인해 체소의 잎이 계속 자라는 ‘웃거름’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월동 병해충의 생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봄철 생육기 병해충 방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파의 경우 3월 중하순에 2차 웃거름을 주며, 한 번 주는 양은 10a(300평)당 요소 17.4kg과 염화加里 8kg을 뿌려준다. 양파의 생육이 왕성(웃거름)하고 비료가 부족할 때 추대(꽃대) 발생 우려가 있기에 적기, 적합량의 웃거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난지형 마늘의 경우 생육상황을 보아 비료가 부족한 경우 뿌려준다. 그러나 웃거름을 4월 중순 이후에 살포할 경우 2차 생장(벌마늘) 우려가 있기에 적기에 비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파 노균병은 월동 전 육묘

기나 본 밭에서 감염돼 2~3월 중 발생하며 이 시기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4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가 온 뒤 적용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뿌려주고 수확 후에는 줄기나 잎을 소각하거나 땅에 묻어서 병의 원인인 곰팡이를 사멸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봄철 온도 상승기가 앞당겨져 병해충 방제를 보다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밭갈이, 멀칭 등 한 번 병발하면 방제가 쉽지 않은 만큼 사전에 철저히 방제해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청정유기농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오금열)이 지난 18일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유기농우유 500상자(1000만원 상당)를 고창군에 기탁했다.

“코로나 극복” 고창군민 희망 기부

유기농우유 · 고구마말랭이 · 블루베리농축액 · 마스크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창군민의 희망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고창청정유기농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오금열)이 지난 18일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유기농우유 500상자(1000만원 상당)를 고창군에 기탁했다.

오금열 대표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방역종사자와 학교 개학 연기로 끼니를 거를 수 있는 지역 아동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금더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식)에서도 “방역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해달라”며 고구마말랭이 2000봉지(360만원 상당)를 고창군청과 전라북도청에 각각 1000봉지씩 전달했다.

해리면새마을부녀회(회장 김은희)에서 블루베리농축액 10상자(100만원 상당), 무장면 산돌농장(대표 박원숙)에

서 유정란 150판을 군산의료원에 전달했다. 또 방역마스크 구입 등에 써달라며 고창군새마을부녀회(회장 문은애) 100만원, 흥덕면 백명간설(대표 백원삼) 100만원, 고창우리여행사(대표 이병희) 10만원, 청보리잡곡 정창규민 10만원, 무장면 유덕순민 20만원을 기부했다.

농업법인 고창청농원(대표 배태후)에서 방역마스크 400장, 고창읍 감동수씨기 일회용마스크 50장,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와 고창군여성회관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수제 면마스크 600장을 기탁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어려운 시기지만 자랑스런 고창군민들의 기부 릴레이로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청소년안전망 한층 강화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등

부안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과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고위기 청소년 통합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청소년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청소년 선도사업과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위기 청소년을 발굴 · 구조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군은 고위기 청소년 통합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더 적극적으로 고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통합 사례 회의 추진, 고위기 청소년 연계기관 서비스 이용비 지원, 고위기 청소년 긴급 대응 체계 운영, 자살 · 자해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고위기 청소년의 문화 활동지원, 이동상담 차량 운행, 2023년 세계잡버리 고위기 청소년 참가 활동 교육 등 위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소년 안전망 강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